

사도 바울의 독신관

현시대: 결혼이 어렵다. 결혼 연령이 늦추어진다.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독신자 비율: 미국 50%, 스웨덴 47%, 호주 40%, 프랑스 33%, 일본 30%

한국: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15-20%, 전 세계적인 추세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처녀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대답 중 하나: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고 독신을 선호하였다(고전7장)”.

성경 전체를 문맥에 맞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7장

6장의 종결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음행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

7장은 주로 결혼 문제,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준다.

여기서 조심할 것: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대답은 그 당시 교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함(26절, 29-31절).

재림의 임박성, 그 결과 독신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

26-27절: 현재의 고난은 그 당시의 심각한 정치 경제 사정(31절), 그대로 지내라. 결혼에 대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때도 중요하다. 네로의 폭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생을 함.

28절: 장가를 가도 좋고 시집을 가도 좋다. 다만 육신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29-30절: 현재의 고통과 관련된 다른 것들 5개를 이야기 함(결혼, 슬픔, 기쁨, 소유, 세상과의 관계), 고통이 심하므로 결혼한 자들은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어쩌면 떨어져서). 때가 단축되었다(재림의 임박성, 살전4, 살후2, 3).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지 말라.

31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용하되 탐닉하지는 말라.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히11:8-9, 13). 그러나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딤후4:1-4; 5:14; 히13:4).

성경 전체 조명: 사람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결혼해야 한다(창1:26-28; 2:18; 말2:15).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이다(8). 그러면 그는 결혼한 적이 있을까? 결혼한 적이 없다면 대답이 추상적 버는 맥기 박사의 주장: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

1. 많은 이들이 7절에 근거해서 독신의 선물(은사)을 가진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2. 그러나 8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unmarried)과 과부들이 있다.
3.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고전7장에는 ‘unmarried’가 네 번 나온다.
4. 7:11의 경우 결혼한 상태에서 떠난 뒤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음을 뜻함. 그러므로 8절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과부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거에 결혼하였으나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을 가리킴.
5. 행26장의 산헤드린 회의, 바울은 여기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확실하지는 않음). 멤버가 되려면 결혼해야만 한다. 그는 그 길을 가려 하였다(갈1:14)
6. 유대인 청년들은 18세까지 결혼할 것을 종용받았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빌3:5)
7. 고전9:5, 아내를 두고 사역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임
8. 엡5:25의 표현,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상 맞지 않는다.

여러 주석가들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의 글들을 볼 때 그가 결혼했으나 아내가 일찍 죽었고 그는 다시 장가가지 않은 것으로 봄.

1-2절: 손을 댄다는 것은 육체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전이 있었다. 섹스가 종교 그 자체였다. 1,000여 명의 신전 창녀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행17:18)

로마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재산(노예), 여러 아내를 둔 자들도 많았다(가사, 자녀 교육, 시중드는 여인 등). 이런 시절에 바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여자의 위치를 정상으로 높임.
하나님의 여자 창조, 합당한 조력자, 파트너(창2:18, 20)

음행을 피하라: 일부다처, 동성애 포함

3절: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성적인 애정)을 베풀어야 함, 여자도 마찬가지로

즉 남자가 욕정을 채우기 위해 신전으로 달려가면 안 됨.

4절: 결혼한 부부의 몸은 상대방이 주관한다.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성생활을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5절: 부부 생활하면서 각 방 쓰지 말라. 영적인 활동을 위해 잠시 별거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각 방을 쓰면 안 된다(출19:15). 마귀가 틈을 탄다.

6절: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아 글을 쓴다. 명령은 결혼, 허용된 것은 독신

7절: 바울은 지금 독신 상태, 자기와 같기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마다 고유한 선물(은사)이 있다.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마19:3-12)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20여 가지의 이유가 있었고 싫으면 그대로 이혼함 이리 되면 나쁜 습관을 고칠 방도가 없다.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없다.

배우자의 실수마다 이혼하려 하면 결혼이 성립되었는가? 현시대 많은 커플들의 문제 이혼도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강박함으로 인해 허락된 것이다(8).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8-9).

제자들의 반응: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10).

11절: 주님의 말씀: 모두가 독신으로 지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자만 그리해야 한다.

12절: 여기의 고지는 독신을 말함, (1) 나면서부터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 (2) 불가능하게 내시가 된 사람, (3) 복음 사역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사람

8-9절: 다시 한 번 독신 언급. 그럼에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의미: 다만 독신으로 정욕을 참을 수 있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라. 대부분의 남녀는 그렇게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 아내는 남편만을 위해 시간을 쓰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32-35절).

또한 독신이라고 해서 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 방해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 결과 중세 천주교에는 신부, 수도사, 수녀 등의 독신자들이 수두룩하였다.

이들의 특징: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이다.” No!

독신을 강조하는 집단의 문제: 각종 성추행, 동성애의 온상

결론

1.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든 기관,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창2:24).

2.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고전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함. 3.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은 그리해도 됨이 허용되었다.

4. 그러나 욕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

5. 모두 독신으로 지내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6. 결혼하는 경우 주님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한다.

7. 독신과 결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실행하면 된다(7:28).